

2015년 2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 내역>

후원금 입금 현황			
수입총액	34,770,513	전년이월금	13,375,793
지 로	4,270,690	우리은행	6,207,530
국민은행	5,203,000	하나은행	1,266,000
조흥은행	145,000	신한은행	1,330,000
외환은행	472,500	제일은행	300,000
농 협	1,400,000	기업은행	280,000
우 체 국	70,000	지정기탁	450,000

<지출 현황>

후원금 지출 현황			
항 목	베들레헴어린이집 베다니아의 집 벗들의 집 마고네공부방	세부내역	
인건비	7,650,000	보모(야간)3명, 주방 1명의 인건비, 세무사수임료	
주·부식비	2,008,850	주·부식비	
비품, 시설, 영선비	191,000	비품, 시설, 영선비	
활동비, 교통비	35,700	교통비, 봉사자 활동비 및 잡비	
의료비	29,600	약 구입, 예방접종, 외래 진료비	
소모품비(생필품)	804,168	생활용품, 유아용품, 세제, 쓰레기봉투 등	
수도광열비	2,939,810	통신, 전기, 가스, 수도, 케이블, 전화비	
지원금	2,320,000	심리치료, 문화체험등보육지원, 중병치료 지원금	
교육비	88,000	문구류, 책 등 유아교육자료, 한글반운영비	
대출금상환	-	수녀원대출금상환	
노동사목위원회	5,500,000	장기수선충당금, 지정기탁(산재, 진폐환우)	
후원회관리	1,676,220	소식지, 봉투, 우편비, 후원프로그램관리비	
지출총액	23,243,348	잔액(이월금)	11,527,165

<쉼티 이용 현황>

구 분	이월자	입소자	퇴소자	현재
베들레헴어린이집	28	0	5	23
베다니아의 집	6	3	4	5
벗들의 집	10	3	3	10
마고네공부방	8	0	0	8



‘집’으로 사는 신부

+ 평화와 선

저는 올해로 사제생활 9년차, 만으로는 7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중간에 1년 정도 외국에 나가 지냈던 적이 있지만, 크게 보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본당의 보좌 신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 곳의 본당에서 지내다가 작년 2월, 첫 특수사목으로 노동사목위원회에 왔으니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가끔 예전 본당에서 지낼 때 만나던 청년들이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으로 놀러오면 제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신부님! 본당이 좋아요, 특수사목이 좋아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전 항상 무어라 대답해야 하나... 망설여집니다. 본당이 좋았다 하자니 마치 지금은 고생스럽고 불행하다는 표현 같아 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이 좋다 하자니 과거에 함께 살았던 본당 교우 분들이 섭섭할 것 같아 그 대답도 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답을 피하며 "그럼 넌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라고 되물으며 슬쩍 질문을 피해갔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5년이나 10년... 아니 그 이상씩 본당이 아닌 곳에서 사목 생활을 하시는 선배 신부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고작 1년 특수사목을 한 입장에서 무어라 표현하기 조심스럽지만, 분명 사제가 본당에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장·단을 비교하자면 끝도 없겠기에 무엇이 좋고 편하단 말로 정리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어느 것 하나가 더 고생스럽다며 단정 짓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특수사목으로 올 때는 사실 조금은 긴장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본당이 아닌 사목이 더 힘들거나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노동"이란 사목 분야에서 활동하기로 이야기
 가 되었을 무렵에는 아무래도 제게 선입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힘든 노동 현
 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침예한 갈등의 장소에서 사목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긴장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노동사목으로 부임할 때 어느 신자 분께서
 "신부님! 이제 신부님도 '을'의 입장에서 지낼 일이 많으시겠네요."라고 말한
 것처럼 저도 본당보다는 조금 거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을 지내고 보니 저는 여전히 '을'이 되지 못하고 '갑'의 입장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청으로 파업 현장이나 투쟁 현장을 방문
 해도 "신부님 오셨습니까?"라며 환대해주며 대접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노동문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나 집회에 참석을 부탁받으면서도 "오실 수 있
 으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게 공손히 요청하시지, 제가 누군가에
 게 부탁할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는 사
 목을 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대접받으며 살고
 있었고, 아쉬운 입장도 아닌 부탁을 들어주는 "갑"이었던 것입니다.

문득 나는 '을'로 살아본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제로 살면서 억
 울하고 소외된 '을'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정작 저는 '을'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제 안의 한계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을'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동행하고 동반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소임을 받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조바심
 느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 제게는 잊지 말아야 할 질문임에 틀림없는 것 같
 습니다. 사제가 '을'이 아닌 '갑'이라면, 적어도 '갑질'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에 지난 1년, 제가 살아온 흔적들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이나시오 신부

공지사항

1.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4월 후원미사는 20일, 5월 후원미사는 18일, 6월 후원미사는 15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

2. 베다니아의 집 소식

2015년 2월에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한 환자는 6명입니다. 그 중 중국 환자(여, 43세, 2006
 년 입국, 불법체류자)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환자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도박으로 이혼을 한 후 외아들을 혼자 부양하기 어려워 연봉에
 해당하는 소개비를 내고 중국 노무파견업체를 통해 2006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
 습니다. 천안소재의 방직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하였고, 최근에는 경주에 있는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좌측 허리와 다리에 통증과 함께 감각이 둔해져 울산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진결과 척추의 선천성 기형과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이라는 생소한
 희귀병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의 징후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고 서울에서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서울이주노동자 상담실 중국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국립의료원에 입원하여 MRI 등 정밀검사결과, 초진대로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으로 확
 진을 받았고, 더구나 이 환자의 경우는 공동이 밑으로는 등까지 위로는 뇌간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신경손상까지 올 수 있고, 그 상태까지 악화가 되면 신경손상으로
 인한 통증과 마비, 두통, 저림은 물론, 호흡곤란 등 생명까지 위협하게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입니다.

국립의료원 의료진은 수술과 치료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경추와 척추에 선천성 골 기형이
 심하여 수술도 불가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퇴원하게 되었고 베다니아의 집에 입소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치료법이 없어 본국
 으로 귀국하려고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하면서 귀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를 위해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
 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베네딕도 유치원 졸업식



설 행사

4. 국민은행계좌 명의 변경 안내

기존 사용 중인 국민은행 계좌(028002-04-022668)의 예금주명이 미켈라 산티아고에서
 SANTIAGO MIGUELA P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좌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예금주명만 영문으
 로 바뀐 것으로 후원처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 계좌로도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